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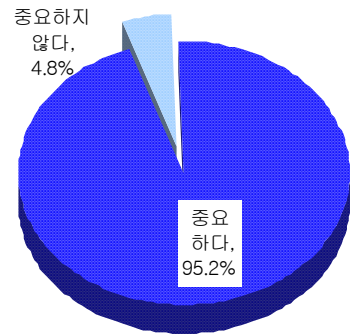
- 평생학습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 서울시의 평생학습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 서울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욕구

평생 학습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¹⁾

- 서울시민은 평생학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서울시민들 10명 중 9명 이상(95.2%)이 평생학습이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평생학습 교육 경험자(조사대상자 1,000명 중 287명)의 중요도 비율은 99.3%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1> 평생학습의 중요성

응답 항목		%
매우 중요하다	30.3	▶ 95.2
중요한 편이다	64.9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4.7	▶ 4.8
전혀 중요하지 않다	0.1	



1) 서울특별시의 2004년 12월 주민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비례할당하여 추출된 만 25세에서 만 64세 이하의 일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일간 설문조사를 하였음. 단, 대학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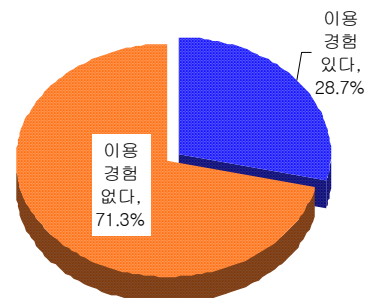
- 평생학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자기계발·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기 때문'(36.1%)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시간을 보람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30.9%)에, '급속한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21.3%)에, '직업관련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얻을 수 있기 때문'(11.7%)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의 경우에는 평생학습의 중요성 이유로 '여가시간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평생학습이 삶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8%(48명)에 불과하였으며, 이러한 응답의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3.3%), '실생활에 도움이 안돼서'(33.3%) 등이 제시됨.
- 도심권 거주자들과 노인층의 경우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60세 이상(10.6%)과, 중구(18.8%), 용산구(16.7%) 등 도심권(14.3%) 지역에서 '평생학습이 중요치 않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 서울시민의 28.7%가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있고, 참여목적은 71.4%가 '개인적 관심' 때문이었음.
- 서울시민의 28.7%가 평생교육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목적으로는 '개인적 관심'(71.4%) 때문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특히 여성(34.7%), 25~29세(34.6%), 동남권지역(37.2%)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표 2> 평생교육활동 참여 경험

응답 항목	빈도(명)	%
경험	287	28.7
비경험	713	71.3
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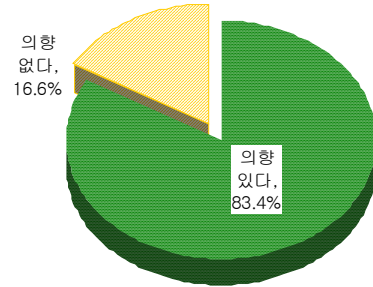
- 반면, 비참여자들의 비율은 71.3%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65.6%)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특히 비참여자들 중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0~44세(80.4%), 서북권 거주자(72.9%), 고학력층 및 화이트칼라 계층(79.0%)에서 높게 나타났음.
- 건강·보건·스포츠 관련분야가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주로 강의식 교육이 많음.
 - 평생학습 참여분야로는 건강·보건·스포츠 관련분야가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취미·오락·여가 관련분야(29.6%), 취업·직업·경력 관련분야(25.8%), 자기개발 관련분야(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교육 진행방식에 대한 질문에 강의나 세미나, 워크샵 교육이라는 응답비율이 월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교육 현실에 익숙한 강의식 교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외에 교육 참여시 장소로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직업·경력 관련교육의 경우 사설학원이나 현 직장교육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교육 지원비를 포함한 월평균 소요비용으로는 대체로 무료 또는 10만원 미만선이 가장 많았으나, 취업·직업·경력 관련 교육에서는 10~30만원 미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욕구

- 다양한 시간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별 저변확대 필요
 - 향후 평생학습 참여 의향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이상(83.4%)이 긍정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5~29세 연령층(88.5%)과 동남권지역(90.5%)의 참여의향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의향

응답 항목	%	
참여할 의향이 많이 있다	29.6	▶ 83.4
참여할 의향이 다소 있는 편이다	53.8	
참여할 의향이 별로 없는 편이다	11.4	▶ 16.6
참여할 의향이 전혀 없다	5.2	



- 평생학습 참여 의향자들(조사대상 1,000명 중 834명)은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 종류'(37.1%)와 '충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24.9%)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45.3%)을 프로그램 참여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음.

<표 4>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중요 요인

응답 항목	빈도수(명)	%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 종류	309	37.1
충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208	24.9
거주지에서 교육기관까지의 거리	14	16.9
교육비 부담 정도	186	10.3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성 정도	52	6.2
교육수료 이후 사회적 활동이나 인정도	31	3.7
졸업장이나 자격증 취득 정도	7	0.8

-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볼 때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개설로 학습자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이들 시간대를 다양하게 하여 시민이 여유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학습참여 활성화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건강 및 여가관련 교육분야 활성화 필요
 -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선호 분야로 건강·보건·스포츠 관련 교육(57.2%)과 취미·오락·여가 관련 교육(50.5%)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자녀 지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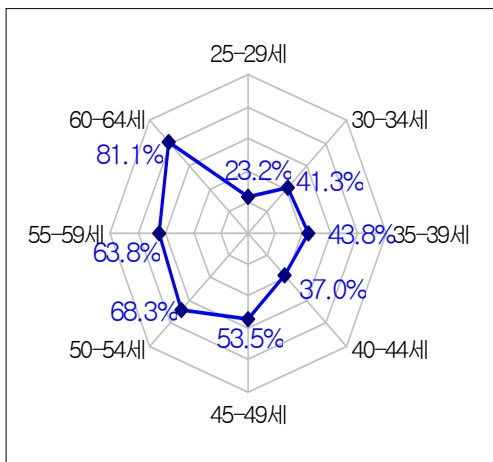
에 대한 선호도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열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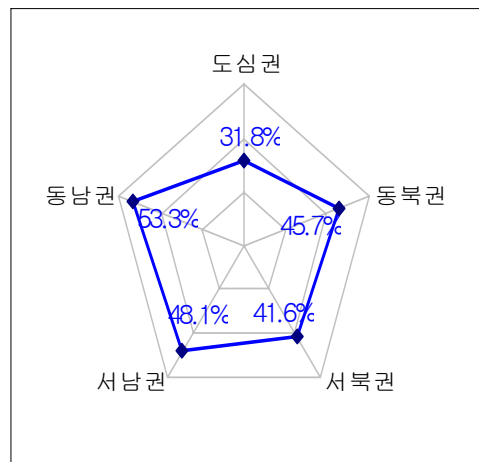
응답 항목	빈도수(명)	%
건강·보건·스포츠 관련 교육	477	57.2
취미·오락·여가 관련 교육	421	50.5
자기계발 관련 교육	247	29.6
취업·직업·경력 관련 교육	184	22.1
기초·교양·문화 관련 교육	132	15.8
자녀 지도 교육	64	7.7
자원봉사 교육	40	4.8
시민·안보·경제·사회참여 관련 교육	37	4.4
학력·학점 인정 교육	27	3.2

※ 중복응답이 가능한 설문항목임.

- 한편,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희망기관으로는 주민자치센터·구민회관 선호의견이 46.8%로 대학(12.0%)이나 사설학원(7.3%) 등 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교육비나 이동 소요 거리 때문인 것으로 보임.



<연령별 주민자치센터·구민회관 선호비율>



<권역별 주민자치센터·구민회관 선호비율>

[그림 1] 연령별·권역별 주민자치센터·구민회관 선호비율

- 서울시민의 80.7%가 희망 교육 형태로 교실수업이나 강의, 세미나, 워크숍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기간으로는 1~3개월 미만(24.3%)과 3~6개월 미만(34.5%)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거주지에서 교육기관까지의 적정 이동시간으로는 10분 이내가 33.3%, 10~30분 이내가 58.8%로 '30분 이내의 선호율이 9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요비용은 무료 21.2%, 10만원 미만 66.5%로 전체 87.7%가 10만원 미만의 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서울시의 평생학습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 보다 가시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며, 관련시설 보다 교육의 질 개선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정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56.2%로 나타났지만,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 또한 43.8%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1순위(29.9%)와 종합순위²⁾(47.9%)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어서 '시설확충 및 정비'(1순위 16.4%, 종합 30.8%), '참여 기회 확대'(1순위 15.7%, 종합 32.4%),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대'(1순위 15.1%, 종합 3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취미·여가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와 프로그램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교육 분야로 '개인 취미 여가교육'(37.6%)이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직업기술교육'(23.8%), '기초교양교육'(21.1%), '시민공동체 생활 필요교육'(1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분야로는 '프로그램의 질'(25.2%) 측면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23.3%) 측면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프로그램 관련 투자를 인력이나 시설, 예산지원보다 우선시 하고 있음. 한편, 가장 필요한 교육시설로 서울시민들은 성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센터(36.8%)를 요구하고 있음. 이어서 체육시설(13.0%), 가족공원(10.2%) 등이 높게 나타났음.

2)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결과에서 1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2순위를 포함한 종합응답 결과임.

-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년·주부층을 타겟으로 지원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향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중년층(17.4%)과 주부(17.4%) 계층을 지적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어서 노년층(14.9%), 직장인(13.9%), 청소년층(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3.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자유의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4.7%)는 요구와 '교육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4.4%)는 지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서울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 정책 확대
 - 서울시민의 대다수(95.2%)가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매우 중요 30.3% + 중요한 편 64.9%)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실제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경우는 28.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2004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참여율 23.2%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따라서 서울 시민들의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에 커다란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의향이 83.4% 정도로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이 실제 행동의 차원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참여 유인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도심권 지역의 거주자들이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14.3%) 있는 점과,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의향이 높은 데 비하여 서남권(양천 62.2%, 구로 65.9%, 금천 61.5%) 지역주민들은 전체 평균(83.4%)에 훨씬 못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특정 지역과 특정 연령층에 대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습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OECD 선진 각국 및 도시에서도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성인의 지속적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체제를 강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서울시는 평생교육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평생학습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

- 73.1%에 달하는 평생학습 비참여자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65.6%), '가까운 곳에 신뢰가 가는 교육기관이 없거나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6.2%) 등을 들고 있음.
-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인으로 '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지적하는 경우가 전체의 30.8%(종합 2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젊은 층과 저학력층, 그리고 송파·강동구 등 동남권 거주자(22.1%)들이 관련 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한 평생학습시설의 확충과 정비가 필요함.
- 시민들이 평생학습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³⁾. 선진 학습도시나 일본 동경의 경우, 기초지역(동단위)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지역별로 평생학습기회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대폭 정비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설의 정비·확충과 관련하여 일본의 공민관·평생학습센터, 미국의 21세기 학습센터 등과 같은 지역중심의 학습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평생학습 시설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기존의 평생학습 관련시설들도 시설의 인텔리전트화와 함께 네트워크의 촉진을 통하여 평생학습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 및 상담기회 확대

- 주위의 권유를 통해 평생학습 기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비중있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자의 구전에 의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44.6%),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도 32.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평생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생학습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서울시의 각종 평생학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보를 DB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S.B. Merriam and R.G. Brockett, 1997, *The profession and practice of adult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K.P. Cross, 1982, *Adults learners: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비록 현재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하다고는 하더라도, 평생학습 참여의지는 10명 중 8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평생학습 참여 의향자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시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의 종류를 참여결정의 중요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37.1%),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전체의 47.9%).
 - 따라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시설 전문가들의 연수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시 차원에서 우수 프로그램과 특수 계층을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이를 선정·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평생학습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 시민들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육의 질을 가장 우선시 하고(47.9%) 있으며,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 따라서, 평생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담당자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함.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자에게 친화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를 지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평생교육 기관의 총체적인 질관리(TQM)와 함께, 담당자의 전문성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각종 평생학습 결과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인정체제의 구축
 - 서울시민들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평생학습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인정체제가 확보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각종 자원봉사제도와 평생학습 참여를 연계시키는 방안, 평생학습 결과에 대한 인정체제의 구축, 그리고 다양한 평생학습결과를 국가자격 혹은 민간자격과 연계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제를 서울지역 공공기관은 물론 타 지역 관련기관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개별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여성, 노인, 청소년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학습자 친화적인 차원에서 개발·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은 취미 및 여가교육, 직업기술교육, 기초 및 교양교육, 시민교육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 프로그램들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학습자의 참여 장애요인 제거 노력
 - 평생학습 비참여자가 전체의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력자·저소득자·고령자·청소년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이 시간적·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상에서 겪게 되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학습자 지향적인 총체적 질관리 체제(TQM)의 확보
 - 시민들의 평생학습 저해요인, 활성화 요구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이 바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관리이고, 프로그램의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총체적 질관리 체제를 확보해야 함.

-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각종 홍보매체의 개발 및 운영
 - 평생학습 참여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학습의향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점임.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홍보매체를 개발하여 관련 정보가 학습의향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권두승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 · 명지전문대 교수
 02-300-1005
 dskwon@mail.mjc.ac.kr